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박바울 목사님 그리고 JSB Mission Fund Team께

그간 주안에서 평안 하셨는지요?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와 저희 가족은 모두 잘 있고 자메이카 농아 선교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메이카 선교활동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지난 12월 6일에 미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과 12월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농아인들에게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는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 주 화요일마다 오후 4시에 농아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매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지난 11월 1일, 몬테고베이에서 선교세미나에 초청받아 선교에 대해 설명하고 교제하였고 11월 2일에는 몬테고베이 농아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어서 4일에는 농아고등학생들을 초청하여 성경 공부 및 게임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5일에는 맨더빌에 있는 농아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그곳 농아 교인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7일에는 킹스턴 일반교회에서 일반교인들과 농아교인들이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고 제가 수화로 설교하고 일반 교인들에게 수화 통역사를 통해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킹스턴에 있는 일반교회에서 농아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가르쳤고 12월 5일에 킹스턴에 있는 농아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1일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한국 농아 사회 및 문화 등을 가르쳤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자메이카에서 복음을 전하여보니 자메이카 역시 농아인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고 공식적인 농아인 목사님이 1명 밖에 없어 말씀 전파가 굉장히 느리고 많은 농아인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자메이카에 방문 할 생각입니다.

일단 내년 1월 초에는 다시 브라질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을 떠난 후, 브라질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여러 번 재방문 부탁을 받아 다시 브라질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안전하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선교 활동에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주안에서 평안하고 은혜 충만하게 보내시길 기도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JSB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자메이카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2. 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3. 브라질에서 안전하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몬테고베이 농아 선교 활동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맨더빌 농아 선교 활동



킹스턴 일반교회 설교



남미 자메이카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킹스턴 농아 선교 활동



킹스턴 농아 중.고등학교

